

#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홈페이지 오픈

##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긴장 세계에 알려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을 중심으로 열리는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홈페이지 주소는 'Pocheon Asian Art Festival'의 머리글자를 딴 'www.paaf2005.org'이며 참여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뉴스레터, 포토앨범,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길(Road)'을 주제로 삼은 이번 미술제는 분단의 현실과 접경지역의 긴장을 세계에 알려 평화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포천시는 이를 기점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미술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키르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에서 약 70명이 참가해, 회화, 조각, 설치, 심플체널 비디오,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퍼포먼스, 전통무용, 환형리셉션 등이, 체험행사로

깃발 만들기, 벽화그리기, 찻할 만들기, 자화상 그리기 등이 마련된다.

이번 미술제 조직위원장 겸 예술감독을 맡은 윤진섭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은 홈페이지 초대작가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주 전시장인 포천반월아트홀이 중소도시의 아트센터로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70여 초대작가의 작품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트를 주변 야외와 인근 시설까지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욱

흥미로운 미술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위원장은 반월아트홀 인근 방호호와 대형 운운테트를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독특한 발상을 통해 호화로운 국제전이 보여지지 못하는 차별성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천아시아미술제를 매우 독특한 색채로 만들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콘셉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國의 선비정신 · 6

# 사적으로는 원수(政敵)지만 공적으로는 도움을 준 이종성

이종성(李宗成)  
(1692~1759)



리효종  
포천신사사 대표

영조대왕이 만년에 정순왕후로부터 후사를 이으려는 희망이 간절하여 회인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정순왕후에게 자주 올리도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콘셉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왕후는 성덕이 있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아기를 가지면 후 세손(世孫: 후에 정조)이 임금의 사랑을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몰래 약을 다른 곳에 버리고 들지 않았는데 주삼은 실로 이렇듯 귀중하고 아까워한 문

당시 영조가 문씨 성을 가진 후궁을 귀여워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몰래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 할 계략으로 웃으며 배에 덧 붙여 마치 아기를 뱀 것처럼 꾸미고 아기를 가졌다고 드러내 놓고 말하였다. 그 산월이 되어 놀 래 친족에게 부탁하여 민간의 갖 태어난 아이를 구하여 궁중에 들여오게 해서 자기가 낳은 것으로 말하려 하였으니 그 흉악한 음모는 장차 헤아릴 수 없었다.

한편 이종성이 고향인 장단의 오촌으로 가려 하다가 그 기미를 먼저 살피고 대상갓과 도동이 차림으로 남대문 밖 용산 강가에 가서 낚시를 드리우고 있었다. 하루는 석양때 시골의 무부(武夫)가 이 곳을 지나다가 이종성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쉬고 있는 것이었다. 이종성이 물었다. "대는 낚시요?" 시골 무부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무록 사람인데 무과에 급제한

지 10년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다리 뻗을 길이 없으므로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려 합니다" 이종성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저품 이 영부사(李가 領府事: 곧 이종성) 나라의 공권을 장악하였고 또 남을 구제하는 풍토가 있다하니 이번 걸음에 가거든 곧 바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하인을 찾아 용산강에서 고기 낚는 노인이 얘기해 보냈다고 말하면 반드시 유숙시켜 줄 것이고 또 출세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이 기뻐하며 사례하고 곧바로 저동으로 들어가서 그 노인의 말대로 전하니 모든 것이 조그맣게 틀림 없었다. 해가 저문위에 이종성이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을 불러 만나 보았는데 그 사람이 그제서야 이종성 대강인 줄 알고 부복하며 환공하게 여겼다. 이종성이 좋은 말로 타이르고 수일동안 유숙시킨 뒤에 통화문의 수문장을 시켰다.

하루는 이종성이 무장을 불러 신신 당부하였다. 오늘 밤 누(漏)가 파하고 궁문을 열 적에 반드시 궁비(宮婢: 궁중의 여종)가 붉은 포대기로 합지를 써서 음식물처럼 이고 들어올 것이다. 네가 곡직(曲直)을 묻지 말고 수색해 보면 반드시 어린아이가 있을 터이니 모진 마음 먹고 손을 대어 한 칼에 두 동강이를 내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였다.

그 무장이 그 날 밤에 명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이종성의 말대로 한 궁비가 합지를 이고 들어오므로 불문곡직하고 칼을 휘둘러 죽이니 온 궁중이 놀라 동요하였다.

이튿날 아침 전정(殿庭)궁문에서 드디어 후궁 문씨의 간악한 계획이 발각되어 같이 모의한 문씨 집안의 족속들을 모두 귀양 보내거나 죽이고 세손(世孫: 정조)의 자리를 보존하게 되었다.

오랜전 이종성의 기지가 아니었으면 궁중에 큰 난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종성이 죽은 뒤 정조(正祖)가 지어 내려 보낸 제문(祭文)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용산강가에 낚시 드리울 때 기다린 사람 누구였더뇨 垂釣江上所須何人 (소주강상 소수하인) 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오월강가에 누를 위하여 지루하게 기다렸던가 五月初上爲誰遲遲 (오월강상 위수지지)

우리 옛 선비들의 발자취는 어려웠다.

## 특별기고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홍을표  
이해소문학회장

저는 지난 1월 15일 '시민대중의 이름을 자유종으로 하자'는 취지의 글을 포천신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민들에게 돈을 거두어 시민대중을 만든다는 일은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것도 없습니다."고 전제하고, "영구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남겨줄 시민대중을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혹 우리가 지금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만든다고 해도 후손들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쓰레기나 고철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우리 후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고려의 대강정은 몽고의 침략이라는 국난을 당해, 조정이 강화도를 피신하여 불력(佛力)으로 이를 이기려는 절박함에서 나온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어 행의 필수 코요인 만리장성은

는 권력자의 전사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43년 국도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호를 써 넣어 만든 '호국로'라는 표지 석조물과 같은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런 절차없이 아무런 당대적 의미도 포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기초한 대안적 고려가 없이 고식적으로 그저 시 승격을 기념하는 기념물로 시민대중을 만든다면 다른 수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만든 흔하게 있는 그저 그런 구조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좀더 그럴듯하게 꾸며 만들어 갔다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것들을 자신들만 지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여 문화재로 자랑스럽게 여겨줄 바보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이 땅

우리가 기리고 반박해야 할 선각자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학계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동농 선생을 편향된 주변적인 인물로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해소' 브랜드는 분명 포천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넘치도록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데 우리 포천은 이렇듯 귀중하고 아까워한 문화적 자산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알아야 할 지도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미 금년 1월 15일에 밝힌 '시민대중을 자유종으로 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지나가는 현실을 목도하

# "포천에 '자유종'을 울리기 위한 일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며

만일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꼭 시민대중을 만들어야 한다면,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와 포천 미래의 비전을 그 중에 담아 시 승격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또한 이 난국을 극복하는 희망의 표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양식과 지혜를 동원하고 포천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담아 이해소 문화회 회원들과 상의하였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뜻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자유종'이라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대중추진위원회에서 밝힌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포천에는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재가 없어 시민대중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규 추진위원장이 밝힌 금년 6월 7일자 발표한 '당부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우리 포천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삼국시대에 축성된 반월산성 외에는 아

가장 큰 국가적 골칫거리인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진시황이 교육정책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만든 대역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대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그것들을 하여 보존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 생각해 국가는 문화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월산성이 국가사적지로서 귀중한 문화재가 된 것은 고대의 당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국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영토전쟁에서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지이기 때문에 동원하여 이곳에 성곽을 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방위거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보루를 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과국가인 고구려의 축성에 대한 그 역사의 귀중한 증거로서 반월산성을 문화재로 규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여 문화재로 부르는 모든 것들은 그 문화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당대 현안 과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한가하게 후손을 위해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문화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당대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

며, 광복 60주년인 8.15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유종)은 포천이 우리나라의 통일 중심도시로 탄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소 브랜드도 포천이 새로운 문화와 학문의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해방 60주년을 맞는 저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포천에 '자유종'을 울리기 위한 일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란 1월 15일 쓴 글에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저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유종이 울린다. 그것은 천년의 한을 울리는 해일(解纜)의 소리이며, 역사의 새 장을 알리는 개벽(開闢)의 소리이며, 삼국을 아우르는 화해(和解)의 소리이며, 화이부동하는 조화(調和)의 울림이며, 문화 교육 도시 포천의 신생벽을 알리는 개명(開明)의 울음이며, 남북 분단의 고통으로부터 해방(解放)되는 소리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의 합창(合唱) 소리이며,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조(創造)의 아우성이다. '자유종'이 울린다. 그것도 해방 60년을 맞아, 을사보 호조와 100주년을 맞아, 1000여 년의 군(郡)을 벗어나 시(市)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대적인 시위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대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후, P초등학교 5반분의 1 '한반도 남부 지도'의 월북 사건(6. 25가 발발하자 남침 작전지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들 하였음), S초등학교 야심찬 시각의 '인민공화국기' 계약사건, 구슬리 포목점 대문의 북괴찬양 포스터 부착사건, 여관 종업원을 가장한 여간첩 잡거 사건, S초등학교 '나아가자 동무들아' 불온 배라 습득 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여 포천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38도선 접경인 성동교, 양문리, 38교, 오가리 인민군 38경비대의 잦은 남침 사건 등도 예종면, 신북면, 창수면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

'해방이 되면 내 조국은 행복하게 사는 평화의 나라로 온 국민을 기쁘게 하겠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내 고향 포천 사람들은 실망시키고 어지럽힌 사건들이었다. 옛날 해방 3년을 회상하면 아깝듯이 떠오르는 사건이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인터뷰

# 생활 속의 서각 보급에 앞장



김지호  
(사)한국서각협회 포천시지부장

"포천시민들에게 서각의 예술적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하고 싶어요"

(사)한국서각협회포천시지부가 지난 7월 10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인준 받았다.

(사)한국서각협회포천시지부는 김지호 지회장(34·관민면)을 중심으로 현재 18명의 회원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재보수분과가 협회차원에서 존재하지만 당분간 지역적인 활동보다는 서각의 홍보와 보급에 주력하겠다는 김 지회장.

종합예술로서 서각은 회화, 조각, 서예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각은 크게 전통서각과 현대서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포천의 동호인들은 현대서각을 위주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서각은 한번 배우고 나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농민감, 상, 함, 생필품의 장식 및 보수에 응용할 수 있다"며 "서각은 재료 및 장비가 저렴한 편이라 시민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각협회의 작업실이 없어 배우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김 지회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하고 있다.

(사)한국서각협회포천시지부는 오는 11월에서 12월 중에 창립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김 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서각협

회 충청남도지회와 독립기념관이 광복 60주년 특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하는 '독립운동가 어록 유목 서각전'에 참여한 서각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범석 장군 유목과 민필호 선생 어록을 출품했다.

지역매 기자 94spice@hanmail.net

안력  
• 現 대한민국 중부서예대전 초대작가  
• 現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대전 문인화 서각대전 초대작가  
• 現 중국초청전시실 및 하문박물관 연구소장

## 초대 漢詩

# 彼香亭(피향정)

湖南第一彼香亭(호남제일피향정)  
피향정은 호남지방에서 으뜸가는 정자인데

叢竹芳蘭特秀靑(총죽방란특수청)  
대외 난초는 특별히 푸르구나

東嶺薰風吹到檻(동령훈풍취도檻)  
동해에서 부는 훈풍 난간까지 불어오고

西岸細雨濕前庭(서안세우습전정)  
서안에서 시작된 가랑이 앞마당을 적시네

孤雲學問千年頌(고운학문천년송)  
고운의 학문은 천년을 이어오고

可宅歌辭當代醒(가택가사당대성)  
가택의 가사(가흥곡)는 당대를 일깨워네

探訪人波常不絕(탐방인파상부절)  
피향정을 찾는 인파는 영종 이어지는데

風流繼承企丁學(풍류승계정경명)  
고유의 풍류가 계승되길 바라

\*위 작품은 제5회 정음(卍)문화원 전국한시승모전 입상작임.



양재창  
포천향교 전교

## 초대 詩

# 꽃중의꽃 호박꽃

꽃난이 호박꽃  
꽃 받는 꽃  
꽃 중의 호박꽃

꽃가루 날려  
자식 키우며  
너그럽게 부드럽게

호박의 그늘에 가려  
주인의 이름에 가려  
내 존재 유무에 이누구나

일싸이는 꽃  
포용의 어머니 꽃

꽃이 아닌 꽃  
꽃 중의 꽃 호박꽃  
세상의 어머니 같은 꽃

벌나비 불러  
먹어 살리고  
자식 품어 길러내는  
모정의 꽃  
꽃 중의 꽃 호박 꽃



이석구  
마흥문화회 회원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0)

# '해방 3년간'의 포천

1950년대 소설가 이무영 님. 이무영 님은 소설의 주 소재였던, 농촌 소설을 내 던지고 사상계사를 통해, '해방 3년'이란 장편 소설을 내 놓아 화제가 되었던 생각이 난다.

넌 '해방 3년'을 통해 내 조국의 해방 후, 혼란기를 지나라 하게 그림 그리려고 하였다.

내 고향 포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8.15 해방의 그날, 일본 소화왕의 항복 방송이 울리고 한 달 후, 미군이 진주하여 한해 개울가 에다 천막을 치고 주둔하였으며, 장교들은 포천경찰서 유도 연습장에서 숙소를 정하고 살았다. 당시, 포천 출신 대학 졸업생

이었던 박승방, 권혁도, 김일동, 최학규 님 등은 미군들을 찾아가 포천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역도 하였으며 새로 임명된 군정청 임명 군수 이재신 님은 미군 중위, 군정 파견관의 지시를 받아 군정을 펴 나갔다. 그런데 내 고향 포천에는 큰 범죄사건이 터져서 군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P교회의 청년회장 0씨가 S장로님께 '0숙장'의 따님과 결혼자금을 빌려 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분개하여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는가하면 군내면 R씨가 남포당 골수당원으로 활약중, 포천경찰서에 의해 검거신분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

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 신북면 심곡리 국사봉 기술에서는 남북이 충돌하여 경찰차와 버스를 충돌시키다가 경찰차에 부딪혀 경찰차에 불이 붙어 버스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8도선인남 인구 5만의 소도읍이었던 내 고향 포천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었으며 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청년회장의 살인사건은 범인을 추격 끝에 검거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신북면 무장남파간첩사건의 경찰 11씨를 체포해 사형시켰으며, 군내면 남포당 골수당원의 경찰 신문 도중 사망한 사건은 전국의 남포당원들이 운집하여 대